

장시와 서사시의 형태적특성

강 문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는것과 함께 시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8페이지)

음식도 료리에 따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달라야 그 맛을 더 돋굴수 있듯이 시작품도 여러가지 형태로 형상하여야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시문학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장시와 서사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시문학형태로서 그 형태적특성을 잘 알고 시창작을 진행하는것은 시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로부터 논문에서는 장시와 서사시의 형태적특성에 해답을 주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형태적특성에 있어서 장시는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흐름을 기본으로 하는 시형태라면 서사시는 객관적인 이야기줄거리를 기본으로 이에 대한 시인의 주정토로를 펼치는 시형태라는것이다.

문학의 형태를 가르는 첫째가는 기준은 묘사방식이다.

장시는 철저히 서정적묘사방식에 의거하고있으며 서사시는 서사적묘사방식과 서정적 묘사방식이 결합된 묘사방식에 의거하고있다.

때문에 장시에서는 시인의 주관화된 감정정서의 흐름을 기본으로 시가 전개되고 서사시에서는 객관적인 이야기줄거리가 기본으로 이에 대한 시인의 주정토로가 펼쳐지게 된다.

실례로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조기천)을 대비하여보면 그 차이를 잘 알수 있다.

장시 《인민의 어머니》에서는 시인이 전면에 나서서 시인의 감정정서를 기본으로 시가 전개된다.

꽃이 피면
송이송이 꽃속에 그림고
눈이 오면
송이송이 눈속에 못 잊는 어머니

눈부신 9월의 해빛속에
더더욱 그리워
못 견디게 그리워
우리 삼가 꽃을 안고
여기 주작봉마루에 오르나니

장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첫 시작부터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속에 주작봉마루에 오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주관화된 정서적체험세계를 보여주고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정서를 시종일관 끌고나가고있다. 절의 구분이 없이 일관한 정서흐름을 펼치고있는 작품은 크게 3개의 감정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어머님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친위전사의 한생이었다는 감정정서를, 두번째 부분에서는 어머님의 한생은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신 한생이었다는 감정정서를, 세번째 부분에서는 어머님의 한생은 그 어떤 특해도 특전도 바라지 않고 인민들과 똑같이 사신 위대한 평민의 한생이었다는 감정정서를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감정정서의 흐름을 기본으로 시인의 정서적주장들을 해명함으로써 어머님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작품의 사상을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장시에서는 이렇게 시인의 주관화된 감정정서가 일관하게 흐르는 한편의 큰 서정시로 되어있다.

그러나 서사시에서는 객관적인 이야기줄거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인의 주정을 안받침하고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보면 시전반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유격대의 투쟁이야기가 기본사건선을 이루고있다.

작품을 보면 처음부터 홍산골전투이야기라는 객관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는 철호의 이야기를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H시가전투이야기가 중심사건으로 전개되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석준의 소이야기와 같은 극적인 객관적 이야기들도 펼쳐보이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줄거리가 기본으로 전개되고 이에 대한 시인의 주정토로가 펼쳐지면서 보다 서정화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사시에서 주정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실례로 서사시 《백두산》의 5장을 보면 객관적인 두 인물 철호와 영남이가 적들에게서 추격을 받다가 영남이가 희생되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어있다.

5장의 첫번째부터 세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들과의 총격전이 있는 뒤 걸음을 멈춘 철호가 영남이를 껴안아 땅우에 내리우는데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철호는 영남이의 상처를 싸매고 산속의 밤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물을 달라는 영남의 말을 듣고 철호가 달려갔다오니 영남이는 숨져있었다. 여기까지는 시인의 개입이 없는 객관적인 이야기뿐이다.

그러나 네번째 단락에서는 영남의 희생에 대한 시인의 느낌이 주관적으로 주어진다.

...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누런 흙에 점점이 떨어진다
장백의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이 무덤이 첫 무덤 아닌줄이야
우리 어찌 모르랴!
침략의 피 서린 밤이

이 나라에 칭칭 걸치였거니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었노?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이와 같이 서사시에서는 객관적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격렬한 정황과 감동적인 화
 폭에서 시인이 직접 등장하여 자기의 주정으로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보다 서정화하여 펼
 친다.

서사시의 머리시와 마감시가 대체로 시인의 주정에 의하여 전개되는것도 바로 객관적
 인 이야기를 보다 서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처럼 장시에서는 전반흐름이 시인의 주정으로 되어있다면 서사시에서는 객관적인 이
 야기줄거리가 기본흐름으로 되면서 이것이 시인의 주정속에서 보다 서정화되어 펼쳐진다.

다음으로 장시에서는 사건적인 련관이 없는 감동적인 일화들이 제시되지만 서사시에
 서는 사건적으로 서로 련관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것이다.

장시와 서사시는 다같이 일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장시에서의 이야기와 서사시에서의 이야기는 서로 차이를 가진다.

장시작품들에서는 시인의 주관적인 토로가 기본으로 전개되면서도 시인의 정서적주장
 을 해명시켜주기 위한 간단한 일화로서의 이야기들이 시에 펼쳐진다.

...

잊을수 없어라
 잊을수 없어라
 도천리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던 그날
 어머님께 하신 수령님말씀

—정숙동무

위험한 적후어로 보내는 동무에게
 내 줄것이 없구만

...

이 털실로 목도리라도 떠서 쓰오

...

우리 어머니
그 목도리
공작지에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셨던가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백두의 모진 추위속에서도
한겹군복을 입으시고
눈보라 만리길 걸으시는 수령님

그 모습 마음속에 아프게 밝혀와
도천리로 떠나시던 그밤처럼
밀영의 우등불아래서
풀고푸시여 한뜸두뜸 떠올리신
사령관동지의 겨울내의

그런데 몇해가 지나
그 겨울내의 다시 풀릴줄
우리 어이 알았으랴

백두의 하늘가에 쌍무지개 어리고
소백수기슭엔 버들개지 피어나던
2월의 그날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내의
어머니 다시 풀어뜨신
크지 않은 뜨개포단

몇번이나 다시 풀고
몇번이나 다시 뜯 그 목도리에
다 어려있구나
이 나라 빨찌산 3대장군의
고난의 력사가

—장시 《인민의 어머니》중에서—

레문에서 보는것처럼 장시 《인민의 어머니》에도 어머님께서 빨찌산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받으신 목도리이야기를 비롯하여 해방된 이듬해 댁으로 들어서시던 수령님께서 발뒤축이 얼고 터지여 잘 걷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 금강산의

풍경병풍을 썼던 보자기천으로 옷을 만들어입으신 어머니의 수수한 옷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장시에서 보여주고있는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다 작은 이야기거리 - 화폭적인 일화이다. 이 일화들은 사건적인련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며 시인의 감정정서의 흐름에 껴여있는 이야기들이다. 목도리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서의 어머니의 풍모를 보여주고있으며 옷이야기는 위대한 평민으로 겸박하게 사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로서 서로 다른 이야기이며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련속으로 되지 않는 전혀 사건적련관성이 없는 일화들이다.

그러나 이 일화들은 어머니는 그 위대한 풍모로 하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작가의 정서적주장을 해명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일화들인것이다.

장시에서는 이처럼 어떤 이야기줄거리보다도 시인의 감정정서를 보여주는것을 기본으로 하는것만큼 구체적인 사건발전의 단계가 없이 시가 전개된다.

다시말하여 감정의 발전단계는 있지만 사건의 발전단계는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사시작품들에서의 이야기들은 발전적인 단계를 이루고있는 이야기줄거리이다.

실례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조기천)에서 사건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작품은 H시가전투를 중심으로 철호의 지하공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사건축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철호가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떠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H시가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희생되는 이야기까지 시종일관 끌고나가면서 하나의 이야기줄거리를 펼쳐나가고있다. 철호의 이야기가 어느 한 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전개되어있으며 1장의 사건이 2장의 전제로 되고 2장의 사건이 3장의 전제로 되는 식으로 순차적인 사건적련결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보면 1장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철호가 압록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이고 2장은 압록강을 건너온 철호가 접선자인 꽃분이의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이며 3장은 지하활동을 벌리는 철호의 이야기로서 한 인물의 사건선이 순차적인 발전 단계를 이루면서 전개되고있다.

이렇게 서사시에서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설정되어 그들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중심 인물의 행동선이 펼쳐지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비유해 말하면 장시에서는 정지된 화상이 펼쳐진다면 서사시에서는 영화가 흘러가는것이나 같다.

이처럼 장시와 서사시는 일화를 담는가, 이야기줄거리를 담는가에 따라 서로 차이나는 시형태이다.

다음으로 장시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발전하지 않지만 서사시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창조되고 발전한다는것이다.

장시와 서사시에서는 다같이 일정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여 그들의 성격창조와 발전이 두 시형태에서 다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시에서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화폭이 주어질뿐이지 구체적인 인물의 성격이 발전하지 않으며 형태상 인물의 성격발전을 보여주는것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객관적인 인물의 성격창조가 서정의 발전과정에 이바지하는

가 이바지하지 않는가에 따라 필요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실례로 장시 《인민의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의 성격발전과정이 그려진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격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단면을 세부적으로 그려주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만약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서의 어머니의 성격을 발전적으로 그린다면 어머니께서 투쟁에 나서시던 때로부터 위대한 혁명가로의 성장과정을 폭넓은 묘사로 그려야 하지만 작품에서는 목도리이야기라는 극히 간단한 생활세부묘사로서 어머니의 성격적단면을 보여주는것으로 끝나고있다.

그것은 장시형태가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작가가 제기하고 해명하려는 주제사상을 보여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시인이 직접 받아안은 발견적인 감정정서를 보여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이다.

때문에 장시에도 인물들은 있지만 그들사이의 관계는 발전단계에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는것을 형상적과제로 제기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서사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창조와 발전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실례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꽃분이의 성격발전과정을 보기로 하자.

꽃갈다고 꽃
 분같이 희다고 분—
 꽃분의 어린때는
 혜산 어느 마을에서 지냈다
 술개골로 온지도 십여년—
 학교라곤 구경도 못한 꽃분이
 허나 기나긴 겨울밤은 한글의 밤—
 아버지의 가르침 받아
 손짜래에 때묻고 모지라진
 몇해전 《신녀성》도 쉽게 보았다
 임당수 깊은 물에
 심청이를 버린 그 배사공들이
 한없이 야속하다 눈물도 지었고
 드덜기 캐면서도
 신관사또 변학도의 목 버이노라
 증동을 찍어 동맹이도 쳤다
 ...
 기미년 《토벌》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그렇게 기다리던 보리밥도 못 받고...
 어떤 때는 치발치는 어머니생각
 온 마음을 비트는듯 조이는듯—
 《어떻게 원썩 갚을가!》
 꽃분이 온몸 떨었다
 ...

꽃분이 한숨지었다
빨찌산 남편을 천정에 감추고
놈들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남편이 알면 뛰어내릴가
한마디 신음도 안낸 그 마을 아낙네 -
《아, 나도 그래리라!》
남몰래 꽃분이 맹세했다!

- 장편서사시 《백두산》 3장 4, 5절 중에서 -

레문을 통하여 꽃분의 초상묘사와 심리묘사가 방불하게 그려져있으며 꽃분의 성격발전과정이 집약적으로 형성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꽃분의 성격을 보면 처음 그는 나라 없는 그 세월 학교문전에도 갈수 없었던 순진하고 가난한 집의 처녀였으며 일제의 《토벌》에 잃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품고있으면서도 항거할수 없어 몸부림치며 갈길 몰라 방황하던 이 나라의 순박한 녀성의 보편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점차 혁명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들어서며 일제를 때려부시는 성전에 떨쳐나서는 혁명적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서사시에서는 이와 같이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묘사가 그려지게 되며 인물들의 성격발전을 통하여 작가가 제기한 인간학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게 된다.

이처럼 장시와 서사시는 등장인물의 성격적발전과정이 있는가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시문학형태인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장시와 서사시의 형태적특성을 여러가지로 대비하여보았다.

현시기 장시와 서사시의 형태적특성을 정확히 가려보고 시창작을 진행하는것은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모든 시인들은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읽는 훌륭한 명장시, 명서사시작품들을 그 형태적특성에 맞게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장시, 서사시, 형태적특성